

주간 증시 전망

대형 이벤트 후 2분기 실적전망 초점
유럽중앙은행 양적완화 등 대외변수 주목
반도체·증권·은행업종 긍정적

주 초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협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미·FOMC가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한 것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코스피지수는 전주대비 1.94% 하락한 2404.04pt로 마감했고 코스닥지수도 1.4% 하락하며 866.22pt를 기록했다.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북미정상회담은 합의문에서 COVID에 대한 내용과 남북한 종전에 대한 언급이 부재하며 기대에는 충족을 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시종일관 긍정적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폐쇄, 2차 정상회담 가능성, 한미대규모 연합훈련중단 등이 언급되고 트럼프대통령과 백악관이 회담결과에 긍정적인 평가는 향후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및 남북경협에 기대감을 주었다.

주식시장에서는 구체적인 내용 부재하고 무엇보다 경협주에 대해 개인만이 매수를 보이는 수급적 한계로 조정 폭이 확대되었다.

장기적으로 남북경협주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숨 고르기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앞에서 언급한 북미실무회담 및 북한미사일 실험기지 폐쇄 등의 이슈부각시 매수대응이 바람직해 보인다.

6월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1.75~2.00%로 0.25% 인상했다. 사실 금리인상은 기정사실로 인식하였기에 금리인상 자체보다는 연내 추가금리인상 횟수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점도표에서 연내 4회 인상가능성과 2019년도 금리인상도 연 2회에서 2~3회로 확대된 것이 충격으로 작용했다.

FOMC회의이후 외국인인 이머징 국가에서 순매도가 증가하며 자금회수를 보였다. 지난 14~15일 이틀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조2000억원이상 순매도하며 지수하락을 주도했는데 삼성전자가 갤럭시S9 출하량 추정치를 대폭 낮추고 2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매도규모(약 1180만주·5600억)가 컸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이 QE(양적완화) 종료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9월까지 지속하는 등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였다. ECB가 양적완화를 지속하면서 유로화 약세와 달러강세의 구도가 이어져 신흥국통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으며 금요일 신흥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흥국통화는 달러 절상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점진적인 달러강세와 금리인상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면서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주는 대형이벤트가 마무리된 이후 시장의 관심은 2분기 실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실적추정치를 낮추면서 지수 전망에도 부담이 커졌지만 여전히 2400pt는 바닥권에 근접한 지수이다. 외국인매도세가 부담이 되지만 IT하드웨어·반도체·증권·은행업종의 실적은 긍정적이며 기저효과로 실적개선이 기대되는 중국관련 주도 조정을 이용해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농민들, 정부 농산물 수급정책에 뿔났다

작황부진 속 일시적 가격 상승 물가상승 주범 몰아가
30년간 제자리 걸음 쌀값 정상화되자 정부양곡 방출

정부가 '쌀상불가'를 잡기 위해 쌀 10만을 풀고 갑자 수급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농산물 수급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물가가 인상돼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지만 지역 농민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과 대책'을 보면 지난해 평균 농산물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4.1% 높은 수준이었지만, 이달 상승에는 평년 수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가장 가격이 크게 들쭉인 품목은 채소류로, 노지채소보다는 시설채소의 진폭이 컸다. 지난해 하순 애호박과 오이 등 시설채소가 고온 다습한 기후와 일조량 부족 등의 이유로 가

격이 평년 대비 35.2%나 뛰는 등 일시적으로 급등했으나 기상 여건이 나이지면 생육이 빠르게 회복되는 특성이 있어 이달 상승 평년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올해 봄 가격이 크게 올라 '금(金)자'로까지 불린 갑자는 지난해 말 노지 봄 갑자가 출하되면서 평년 수준으로 값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감자 20kg 기준 도매가격은 지난해 중순에는 5만940원을 기록했고, 특히 지난해 하순에는 4만1498원으로 집계돼 평년보다 46%나 비싸게 팔린 바 있다. 그러나 이달 상승에는 평년보다 5% 비싼 수준인 2만5062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특히 올해와 같은 가격 급등이 일어나

지 않도록 수매비축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수급이 불안하면 정부가 일정 물량을 직접 수입·공급하는 수급관리 시스템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쌀 가격의 경우 산지 가격 80kg 기준으로 지난 4월 17만1376원에서 지난해 17만2264원을 거쳐 이달 17만4096원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확기까지 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정부양곡 10만을 공매하기로 했다. 이 쌀 공매는 15일 공고 후 26일 입찰을 벌여 다음 달 9일 넘길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원료곡 수급 상황, 쌀값 추이, 올해 재배면적과 작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수급 관리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올해 벼를 재배하겠다는 면적은 71만9000ha로 지난해보다 4.7%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수급대책이 지역 농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작황부진으로 일정기간

가격이 오른 일부 농산물을 지난해보다 값이 올랐다고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쌀 수매량을 늘려 지난 30여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쌀값이 이제 막 정상화된 상황에서 정부양곡을 방출하기로 결정, 쌀값 정상화를 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오는 8월 조생종 벼 수확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지역 농민들은 또다시 쌀값이 곤두박질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다.

광주지역 한 농민은 "올해 쌀값이 크게 올랐다고 해도 지난 30년간 곤두박질 치던 가격이 이제 겨우 정상화된 것일 뿐"이라며 "농산물을 서민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면서 값이 좋을 때 수입을 늘리고 폭락일 땐 보전도 받지 못한다. 이래서야 어떻게 농가소득을 올리고 농업을 이어나갈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스웨덴·폴란드 농식품 세일즈 로드쇼' 성료

농식품부·aT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일부 국가에 편중된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유럽지역을 목표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스웨덴·폴란드 농식품 세일즈 로드쇼'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폴란드의 경우 수입 농식품 중 한국산의 비중은 0.06% 수준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지난해 폴란드 농식품 수출 금액이 3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 증가, 최근 건강 및 웰빙 식품이 연평균 7.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등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아 유럽권역 최우선 전략국가로 선정됐다.

또 스웨덴은 농식품 수출은 900만 달러에 그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비자 구매력과 한국 식품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프리미엄 건강식품의 수요층을 타겟으로 우리 농식품 수출의 북유럽권 핵심 전략국가로 꼽힌다.

이에 따라 aT는 이번 로드쇼에서 유자차, 김치, 쌀과자, 건강음료, 해초샐러드 등 현지 시장에서 유망한 시장다변화 프런티어 8개사와 합

계 스웨덴 최대 유통업체 및 전문 수입상 등 10개사의 유력 바이어를 초청, 삼층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약 440만 달러 상당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T 백진석 식품수출이사는 "비록 우리 농식품 수출의 유럽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지만 파일럿이원과 청년해외개척단 파견을 통해 시장개척에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시장다변화 프런티어에 선정된 10개사에 세일즈 로드쇼, 전략 품목 인큐베이팅, 청년인력 등을 집중 지원하여 프런티어와 청년개척단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T는 지난해부터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20개 전략국가를 타겟으로 선정하고 신시장 개척 의지가 강한 식품 수출업체 100개사를 선도기업인 시장다변화 프런티어로 선정했으며, 유럽·중남미·동남아·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 5개 권역을 대상으로 연 10여회의 세일즈 로드쇼를 운영하고 있다.

캄보디아·베트남 세일즈 로드쇼에서는 국내산 사과·배 등 신선 과실류 80만 달러, 브라질·멕시코에서는 신선 과실류 45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광주본부 유통협의회 농촌일손돕기

농협 광주본부, 광산구 양동 양파농가 일손돕기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최근 광주본부 유통위원회 소속법인 직원 40명이 광산구 양동마을을 방문해 양파수확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직원들은 고령화 등으로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해 본격적인 수확철임에도 양파수확을 포기할 처지에 놓일 만큼 어려움을 겪는 농업을 돕는 등 농가의 걱정을 덜어줬다. 일손돕기에 참여한 박삼자 광주노조 위원장은 "농업인 감소와 고령화로 갈수록 일손을 구

하기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 농촌인력증가사업과 영농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농업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광주본부 유통위원회는 중앙회, 경제, 은행, 보험, 카드 등 법인소속은 다양하지만 농가경영비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영농철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농촌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8월부터 달걀 껍데기 보면 닭 사육환경 안다

오는 8월 하순부터 달걀 껍데기에 찍힌 '사육환경번호' 표시로 닭이 어떤 환경에서 사육됐는지 알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달걀 생산날짜도 확인할 수 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으로 달걀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달걀을 살 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오는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번호 1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연합뉴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키우는 환경에 따라 구분된다. 1(방사 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설펀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과 같이 각 사육환경 해당 번호로 표시해야 한다.

방사 사육은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축사 내 평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를 뜻한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water management systems (방수) by Chilman CMTECH. Includes text: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적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 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가자가 인정했습니다'.

Advertisement for IPALG waterproofing services. Includes text: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회의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캣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061)284-0485', 'H.P (061)683-0485', '010-6603-040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